

남북 교역과 어업의 전진기지 동해

강 욱 / 자유기고가

질푸른 동해 바다와 닿아 있는 동해시는 북한의 장전항과의 금강산 관광유람선 취항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으며 21세기 통일의 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동해 교역과 어업의 전진기지로 동해항과 묵호항 등 2개의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시는 면적이 대부분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은 정선군, 남쪽은 삼척시, 북쪽은 강릉시와 접해 있다. 태백산맥의 줄기를 낀 강원도의 동쪽 지방에서 강릉시가 강원도의 관광지대를 이끌어 가는 도시라면 동해시는 삼척시, 태백시와 더불어 산업지대를 이끌어 가는 도시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동해시(東海市)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고구려가 접경을 이루었던 땅 이었

다. 그 후 조선 전기까지는 삼척의 일부였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강릉부의 일부가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은 묵호항이 개항되면서 1942년 망상면이 묵호읍으로 승격되었고, 1945년 북삼면이 북평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통합하여 동해시가 탄생하였다. 동해시는 청정의 동해바다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원료인 석회암의 매장량이 풍부해 시멘트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동해시는 바다와 산,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또한 전통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관광자원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계곡형 관광지인 무릉계곡은 일명 무릉도원이라고도 부르는데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의 1.4km에 이르는 계곡을 말한다.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되었다. 계곡 입구 무릉반석에서 두타산 정상에 이르는 계곡 곳곳에는 기암괴석이 즐비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금란정, 삼화사, 학소대, 베틀바위, 두타산성, 선녀탕, 병풍바위, 쌍폭, 용추 등 수많은 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두타산은 해발 1,352미터로 많은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명산으로 사계절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천곡 천연동굴은 약 4~5년 전에 생성된 천연석회동굴로 국내 최대의 희귀석들로 어우러진 자연 학습장이다. 망상해수욕장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울창한 송림과 넓은 백사장, 맑고 얇은 물로 유명해 여름 피서철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삼화사는 월정사의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이곳에는 삼화사 삼층석탑과 철불 등이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삼층석탑은 기단 위에 탑신을 세운 일반적 형식의 석탑으로 신라 선덕여왕 13년(644)에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 탑은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층 기단이 다른 석탑에 비해 비교적 높고 옥개석의 받침은 4단으

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4.7m이다. 철불상은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크게 유행했다. 삼화사 철불은 머리는 곱슬머리로 얼굴은 아래가 좁고 세모꼴이고 목에는 세 줄 주름이 있다. 이 철불은 하반신은 완전히 상실되고 두 손과 왼 팔이 없으나 안면 조각이 매우 정교하다. 현고는 120cm, 어깨너비 68cm, 머리높이 40cm이다.

목호항 북쪽 어달동에는 강원도 기념물 제13호인 목호 봉수대가 있다. 이 봉수대의 원래 이름은 어달산 봉수대로, 어달산 정상에 직경 9m, 높이 2m의 돌로 둥글게 쌓은 봉돈의 옛터가 남아 있다. 이 봉수대는 고려시대 동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성한 통신시설이었으나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하였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 서울 남산의 목멱산 봉수까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신호 방법은 연기나 불빛의 숫자로 나타냈는데 하나는 평상시를, 둘은 적이 멀리 나타남을, 셋은 적이 국경에 접근함을, 넷은 적이 국경에 넘어섬을 뜻하였다. 어달산 봉수는 남쪽으로 삼척의 광진산 봉수에 연결되고, 북쪽으로 강릉의 오근산 봉수에 연결되었다.

동해시의 남쪽 끝 해안 삼척으로 들어서기 직전에 동해 해금강을 등지고 북평 해암정이 있다. 이 정자는 강원도 유형문화

재 제63호로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삼척 십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내려와 살 때 건립한 것이다. 심동로의 자는 한이요, 호는 신제로 어려서부터 글을 잘하여 한림원사 등을 역임했다. 고려말의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간신배들의 비위에 거슬려 낙향하려 하자, 왕이 만류하다가 동로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허락했다. 그는 이곳에서 후학 양성과 풍월로 여생을 보냈다. 그 후 정자는 화재로 다 타버렸다가 조선 중종 25년(1530)에 어촌 심언광이 중건했고 정조 18년(1794)에 다시 고쳐지었다.

능파대와 해암정은 동해안 삼해금강의 하나로 불리며 ‘춧대바위’ 등 크고 작은 섬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춧대바위’의 새해 맞이 일출 광경은 빼어나게 아름다워 관광상품으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매년 새해 첫날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춧대바위’의 일출 장면을 보려고 동해시로 몰려든다.

동해시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옛 집이 세 채 있다. 동해 김두수 가옥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3호로 약 200년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김두수씨의 9대조가 세웠다고 한다. 평면은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ㄱ자형을 이루고 집안에는 따로 행랑채가 하나 있다. 안채는 중앙에 대청

마루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방을 앉혔으며 앞으로 부엌 한 칸씩을 두어 ㄷ자형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대청 뒤로 양 옆에 마루방과 재실 한 칸씩을 마련하였다. 사랑채는 대문 오른쪽에 방 한 칸을 따로 두었고 밖으로 ㄴ자형의 뒷마루를 놓았으며 뒤로 부엌을 두어 안채와 연결했다. 이 밖에도 동해시에는 김형기 가옥과 심상열 가옥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묵호항은 삶의 체취가 진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인 묵호항은 이른 새벽부터 어부들과 아낙네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가 있다.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동해안 청정해역에서 건져 올린 산오징어 등 각종 싱싱한 활어를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어달해안의 횃집거리도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물회, 회덮밥, 매운탕, 광어, 도다리 등 다양한 어종의 싱싱한 먹거리를 즉석에서 직접 맛볼 수도 있다.

북평 장터의 역사는 정조 20년(1796)경부터 유래되어 전해내려 오고 있다. 민속 장터로 자리잡은 북평장은 나날이 그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서민들의 향수가 깊게 물들어 있다. 재래장터로 가격을 깎는 재미에서부터 난전에 지천으로 깔

려있는 상품을 감상하는 재미, 어깨를 부딪히며 쇼핑하는 재미 등 갖가지 진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곳은 금강산관광선 출항지인 동해시 북평동 일대의 오일장으로 우시장, 미전과 채소전, 강포전, 어물전, 잡화전 등이 산재해 있다. 외지의 여행객들이 즐겨 찾으며 소머리국밥, 파전, 손칼국수, 보리밥이 유명하다.

이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로 ‘동해 무릉제’가 있다. 1984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명실상부한 동해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해 무릉제’는 점차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문화시민의 긍지와 전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징어축제’는 동해시 지역 특산 명물인 오징어를 주제로 한 축제다. 바다사신 전시회, 오징어회 상설판매장, 낚시 배 운영, 오징어 배 승선 현장체험, 오징어 썰기 대회, 오징어 손으로 잡기 대회, 오징어 퀴즈 등의 갖가지 행사가 관광객과 주민들의 참여 속에 다채롭게 펼쳐진다. 🐙

